

현안리포트 05-004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 동향 및 전망

2005. 2. 15

KOTRA 해외조사팀

- 목 차 -

I.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 동향	1
1. 논의 동향	1
2. 주요 쟁점 사항	3
3. EU 기구 및 회원국 반응	7
II.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전망과 영향	11
1. 전망	11
2. 가입에 따른 득실관계 예측	11
3.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13
III. 우리의 대응방안	15
[참고자료] 우크라이나-EU 관계	17

I. 우크라이나의 EU가입 논의 동향

1. 논의 동향

□ 유셴코 대통령 당선으로 EU가입 논의 본격화

-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유셴코 후보가 승리하면서,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EU회원국으로 받아들이거나 EU와 특수관계 지위를 누리는 나라로 설정,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지난 1월 13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 대거 찬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달에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우크라이나에 "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y)" 지위를 부여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EU가입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 우크라이나 정부 EU가입을 목표로 다각적 노력 경주

- 우크라이나 쿠츠마 구정부는 2002년 EU가입을 최고의 외교목표로 설정, 2010-2011년 중 이를 달성한다는 계획 하에 경제정책 입안 시 등 때 가입 조건 충족을 염두에 두어 왔음
- 2004년 5월 1일 중.동구 10개국의 EU가입으로 EU와 국경을 접하게 된 우크라이나는 EU확대를 통해서 경제협력을 넘어선 경제 통합 및 정치협력 강화를 목표로 EU와의 관계 개선에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왔음
- 이번 친서방 유셴코 대통령 당선으로 EU와의 관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셴코 대통령은 EU가입 문제를 전다할 유럽통합부(European

Integration Ministry)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 유럽통합부는 실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우크라이나, 러시아시장 상실, EU시장 확대 갈림길에서 고민

- 우크라이나 정치계 인사들 중에서 EU가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나 이를 급격히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 있음
 - 전임 쿠츠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메드베추크(Medvechuk)는 EU가입을 너무 서두르다가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비판
- 경제계 인사들 중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가입으로 러시아 시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음
 - 특히 러시아와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나 러시아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인사들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기업이 러시아에서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친서방 노선을 표방한 유셴코 대통령의 당선을 EU가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러시아와 인접한 동부지역이나 러시아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크림리아 자치공화국 등에서는 EU보다는 러시아와 통합할 것으로 주장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나 이들이 대세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음

□ EU, 우크라이나 EU가입 논의에 대한 엇갈린 반응 보임

- 그러나 실제로 EU의 주요 기구들이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을 논의하기

에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여 왔으나 친서방 유셴코 대통령의 취임 (2005월 1월 23일) 이후 EU의 태도는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EU는 우크라이나 경제체제가 아직 사회주의로부터 탈피하지 못했고, 부패 및 지하경제가 만연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 내 EU가입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1.25) EU집행위 대변인(Francoise Le Bail)은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접국 정책(Neighborhood Policy)은 지속되어 나갈 것이며, 유럽의 어떤 국가도 EU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그동안 EU가입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던 입장에서 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2. 주요 쟁점 사항

가. EU가 행동계획에서 밝힌 양측간 관계 개선 우선순위

- EU-우크라이나간 관계는 지난 1998년에 향후 10년간 적용 예정으로 체결된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PCA)"에 기초
 - 동반자협정(PCA)은 EU-우크라이나 법규의 조화, 교역상의 협력, 투자협력, 환경보호, 교통, 교육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협정임
 - 양국은 서로에 대해서 최혜국(Most Favored Nation-MFN) 대우를 하고 있으며, 수출입 규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있음
-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시장경제 지향적인 개혁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시현할 경우 자유무역지대 설립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음

- PCA 우산 하에서 EU 집행위가 1월 21일 발표한 향후 3년간 적용될 'EU/Ukraine 행동계획'에서 밝힌 양측간 관계 긴밀화를 위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민주주의와 법률을 보장하는 기구의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
 - 2006년 의회선거의 민주주의적 행동규범 강화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준수 강화
 - 위기관리에 대한 EU-우크라이나 협의 강화 방안 마련
 - 비무장 및 핵 비확산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 공동 이웃 및 지역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특히 국경간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몰도바 Transnistria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
 - WTO 가입
 - 양자간 무역과 필요한 법규 개혁을 저해하는 제한조치와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폐지
 - 무차별적이고 명료하며 예견가능한 방식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막으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조세 개혁, 조세당국의 개혁, 공공금융의 건전한 관리 도모
 - 우크라이나의 제반 법규와 표준을 EU의 법규 및 표준과 점진적으로 조화시키며, 행정 및 사법역량을 강화함
 - 이민 근로자를 국적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고용문제와 관련된 상성 협의체 마련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폐쇄에 대한 양해각서 완전 이행. 특히 K2R4 원자로의 근대화가 중요함

나. 시장경제국(market economy) 부여의 쟁점 (우크라이나 측)

- EU와의 관계에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EU가입의 전제로 요구되는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 Country)의 지위를 EU가 조속히 부여해 달라는 것임

- 그러나 우크라이나 구(쿠츠마)정부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요청에 대해 EU는 계속 묵살해 왔음
 - 지난 2004년 7월에 EU가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사회·경제·인권 개혁의 미흡함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이 주가 되고 있음
 - 당시 EU 집행위는 경제적 요인으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해결되어야만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파산(Bankruptcy) 규정 엄격화
 - 금속 및 비료분야에서의 가격 책정에 대한 정부 개입 폐지
- 우크라이나 신정부 출범을 앞둔 2005.1.12일에 EU의회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 동 결의안에 따라 2월 21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장경제국가 지위 부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EU-우크라이나 양자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최근 EU집행위는 우크라이나와 EU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10개의 아젠다를 입안했는데 여기에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음

다. WTO 가입 추진 (우크라이나 측)

- 우크라이나의 무역정책을 WTO 가입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있음
- WTO가입과 관련, 이미 EU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간 협정은 합의된 상태이나 다음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
 - 지적재산권 보호,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외국인업체와 국내업체간의 차별, Ferrous scrap과 해바라기 씨에 대한 수출세, 외국인 투자가

의 투자를 막는 부패, VAT 인하, 파산(bankruptcy) 규정 강화, 금속 및 비료분야에서의 가격 책정에 대한 정부 개입 폐지

라. 기타 쟁점 사항

- EU 가입과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우크라이나측이 제기하는 사항은 철강 수출쿼터 증량, 법규 조화, Visa 발급절차 간소화 등임

1) 철강 수출쿼터 증량 (우크라이나 측 제기사항)

- 2004년 철강 수출쿼터 606천톤에서 2005년 1,200톤으로 증량해 달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구에 대해 EU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고철 수출관세(\$30/톤)를 폐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00톤까지만 할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2) 법규 조화 (EU 측 제기사항)

- 제반 규정을 EU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특히 기업법, 경쟁규정, 소비자 보호법에서 조화가 필요

3) 에너지 분야

- 양자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후속조치가 최우선순위로 이행되어야 하며, 에너지 효율성 문제에 대한 논의와 교토협약 이행도 필요

4) 사법 및 내부정책

- EU가 에너지 분야와 함께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임.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통제 등에 엄격한 조치가 필요

3. EU 기구 및 회원국의 반응

개황

- 구소련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EU와 제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선거 결과를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있을 뿐, EU 가입과 연관시키지 않고 있는 분위기임
 - 유럽 의회만 EU 가입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집행위와 이사회는 시기상조라며 이를 논외로 하고 있음
 - 현지 언론이나 업계, 각종 단체들도 대통령 선거와 EU 가입을 연계시키지 않고 있음
 - 결국, 유럽 현지에서는 EU 가입 문제가 별로 거론되지 않고 있음
- 유셴코 대통령은 2월초 EU를 방문할 계획이며 방문기간 중 집행위뿐만 아니라 EU 의회까지 함께 방문하게 됨
 - EU가 우크라이나와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포함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취할지는 동 방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임

가. EU 집행위

- 우크라이나 선거 결과를 적극 환영하고 있으나 EU 가입과 전혀 연관시키지 않고 있음

- 집행위의 모든 인사들이 EU 가입 문제가 질문될 때마다 ‘어느 국가나 EU 가입 조건을 준수할 경우 EU 가입 신청을 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실제로 EU 집행위는 유셴코 대통령이 EU 가입 문제를 자국 내에서 계속 거론하자, 1월 24일 EU 가입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힘
- 집행위는 당분간 EU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대통령 선거이전과 마찬가지로 ‘인접국 정책(neighborhood policy)’틀 내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음
 - . ‘인접국 정책’은 2004년 5월 EU가 확대되면서, 확대된 EU가 국경을 새로 맞대게 된 중·동구 국가들과의 관계와 그 방향을 규정한 확대된 EU의 새로운 정책임
- 집행위는 물론 유셴코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크라이나와 EU간에 새로운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EU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도입과 국내 개혁에 달려있으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니나 EU 가입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음
 - 집행위는 단기간 내에 EU에 가입하는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으며, 기존 협정(인접국 정책, EU-우크라이나간 PCA 협정을 의미)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아울러 집행위는 지난 12월의 EU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대로 오는 1월 31일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10가지 방안을 EU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 유셴코 대통령의 당선 이후 유럽 현지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움직임도 없음

나. EU 의회

- EU 기구내에서 유일하게 유셴코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구임
- EU 의회는 1.13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원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결의안에서 EU의회는 2004.12.26일 치러진 공정한 선거를 환영하고 우크라이나의 정치.경제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EU의 인접국 정책에서 벗어나, 제후협정(EU 가입 이전에 가입후보국과 EU가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 체결을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고 밝힘
 - 그러나 찬성 467표, 반대 19표, 기권 7표로 채택된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음
- 유셴코 대통령은 2월 3일 유럽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며, EU 의회는 동 방문기간 중 EU가 우크라이나에 보다 명확한 유럽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음

다. 이사회

- 회원국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회에서는 집행위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선거결과를 환영하고 있으나 EU 가입과는 연관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음

라. EU회원국별 반응

- 25개국 중 특히 다음 11개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 이전인 10월에 EU와 우크라이나 간에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대통령 선거 이후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원을 얻는데 적극 협조하겠으며 아울러 자신들의 경험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EU 가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들 국가도 우크라이나가 단기간 내에 EU에 가입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EU 가입이 가까운 미래에 핫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이들 역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EU 가입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이고 있음
 - 다만 신규 가입국 중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가장 강력하게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적극적임
 - 기존 EU 회원국중 우크라이나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핀란드 역시 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행동계획(Action Plan)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힘

Ⅱ.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전망과 영향

1. 전망

- 우크라이나 구(쿠츠마)정부는 정액관세를 유로화로 설정하고 제반 법률도 EU가입을 목표로 정비해 왔으며, 경제정책 입안 시에도 EU 가입 조건 충족을 염두에 두어 왔음
- 우크라이나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EU는 우크라이나 경제체제의 이질성, 부패 및 지하경제 만연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여 왔음
- 그러나 친서방 유셴코(Yushchenko)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EU와의 관계가 좀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신정부의 EU가입 노력이 바로 EU가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의 경제·정치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우크라이나가 EU가입 조건을 충족하게 되더라도 EU가입은 빨라야 2012년 이후 되어서야 가능할 전망

2. EU가입에 따른 득실관계 예측

- 우크라이나의 경우 지난 2004.5월에 가입한 신규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EU 가입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EU 회원국으로서 대외적인 외교·경제 안정도와 신뢰도 제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에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음
- 역내 저개발지역을 지원하는 결속기금이나 구조기금을 통해 EU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국내 경제·사회 개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對EU 수출시 적용받던 수입관세가 폐지되어 무관세로 교역가능
- EU로부터 그간 받아온 수입규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등) 폐지
 -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EU의 주요 규제대상국 그룹으로 부상했으며, 2004.12.31일 현재 다음과 같은 8개 품목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음

Ammonium nitrate, Potassium chloride, Seamless pipes and tubed of non-alloy steel, Silicon carbide, Steel ropes and cables, Urea and ammonium nitrate solutions, Urea, Welded tubes and pipes of iron or non-alloy steel

- EU의 철강 수입쿼터 폐지 : 다음과 같은 6개 카테고리에 대해 수입 쿼터를 적용받고 있음

Hot-rolled coils, Heavy plate, Other flat-rolled products, Beams, Wire rod, Other long priducts

- 그러나 EU 회원국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도 직면할 수 있음
 - EU의 높은 표준 및 기술규격, 환경기준, 소비자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우크라이나 기업계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됨.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에서의 탈락이 불가피
 - EU의 엄격한 국가 보조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외국인투자 유치나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공해온 여러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음
 - EU 회원국으로서 각종 對개도국 특혜무역제도 제공 : 그간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아왔으나 EU 회원국이 되면 여타 개도국에게 GSP를 제공해야 하는 한편, 지중해연안국 등 EU가 여러 개도국 및 최빈국에 제공하는 특혜제도를 우크라이나 역시 제공해야 함

- 그 외 기존 EU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비재분야의 우크라이나 제조업이 인근 폴란드, 헝가리 등 EU역내국으로부터 소비재를 무관세로 유입하게 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환경오염이 심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기존 EU국민들로부터 기피되며, 대신 EU산농산품이 무관세로 대거 유입되어 과거 구소련 곡창지대였던 우크라이나 농업의 기반이 통제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그동안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러시아와의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러시아 시장을 많이 상실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왔던 에너지 자원 등의 수입에서 누려온 특혜적 지위를 상실

3.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2004.5월 10개 중.동유럽 국가가 EU에 가입할 때도, 실제로 이들 10개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경제·무역 차원에서는 기존 EU 회원국에 큰 영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EU 25 및 EU 15에 가져올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가 EU 15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

<EU 25의 對우크라이나 교역 현황>

(단위 : 십억유로, 2003년 기준)

	수입	수출
농산물	0.8	0.7
에너지	1.0	0.1
기계류	0.3	2.4
운송기기	0.4	1.1
화학제품	0.5	1.3
섬유 및 의류	0.5	0.7

<EU 15의 대우크라이나 교역.투자 현황>

수입	0.5 십억유로	투자유치	0.01 십억유로
수출	0.6 십억유로	해외투자	0.1 십억유로

(자료원 : EUROSTAT)

- 다만 2004년에 EU에 새로 가입한 신회원국의 경우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경제·무역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유럽 회원국보다 큰 영향이 있을 전망

- EU 가입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EU보다 우크라이나가 혜택을 볼 전망
 - EU는 러시아에 이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우크라이나 교역에서 EU 25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대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EU 수출이 몇몇 회원국 독일, 이태리, 영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품목 역시 저기술제품(금속제품, non-precious metals, 광산물, 농산물, 식품, 경공업 제품 등)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약점이 있음

- 그 외 우크라이나가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급증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경제는 전반적으로 선진화되고, 기업들의 경쟁력도 점차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EU편입 대상국에 대한 EU의 자금지원 및 각종 원조로 산업 구조조정, 사회 인프라 개발, 환경개선 등이 추진됨으로써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Ⅲ. 우리의 대응방안

-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은 현재는 불투명하나, 우크라이나의 EU가입 노력은 지속 및 강화될 전망
- 2004년 5월 1일부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이 EU 가입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현재 EU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EU가입 노력으로 우크라이나-EU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관련 제반 환경이 EU가입조건 충족을 목표로 대폭 개선 될 것으로 전망
 -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를 EU진출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성 대두
- 동유럽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EU시장 및 인접 러시아시장까지 겨냥할 수 있는 좋은 생산기지임
- 서구기업들 또한 인구 4천7백만의 우크라이나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위해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도 이제 단순 상품수출에서 벗어나 현지 투자를 통한 중장기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는 경공업이 취약하여 산업설비 및 플랜트 수요가 크고, 기존 중화학 공업 설비의 개보수 프로젝트도 많이 나오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진출을 통해 산업설비 및 원부자재의 수출확대를 도모해야 함
 - LG 그룹은 우크라이나 정유공장 Ukrtatnafta의 현대화 프로젝트에 약 2억불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우그룹의 철수 후 우리기업의 우크라이나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대형 투자건으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 또한 우크라이나의 건축분과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빈발에 대응하여 우리 건설업계에서도 우크라이나 진출방안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우크라이나-EU 관계

1. 우크라이나 개황

가. 경제 동향

□ 2000년부터 우크라이나 평균 6.5%의 경제 성장률 시현

- 우크라이나 경제가 1990년대에 현저하게 둔화된 후에 2000부터 회복하여 평균 6.5%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2004년에는 12.4%의 GDP 성장률 시현(추정치)

- 경제 성장원동력으로 수출 급증, Hryvnya 안정세 및 농산물 수확량 급증과 함께 2001년부터는 국내 수요 급증을 꺾을 수 있음

- 2002년에 경기가 급작스럽게 둔화되었으나(2002년도 4.6%의 GDP 성장률 시현) 2003년에 다시 9.3%로 급증하여, 기존 정부 예측치인 5~6%를 크게 웃돌았음

□ 2000년까지 인플레이션 급등, 2001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우크라이나 독립 후 물가가 급등하여 2000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금융, 재정 정책 제정 및 자국 통화 안정과 몇 년간의 농산물 수확량 급증으로 2001-2002년도에 안정적인 수준으로 하락

- 2003년 급격한 임금 상승, 국내 수요 급증과 농작 실패가 그대로 물가에 반영이 되어 8.2%를 기록하여 정부 예측치인 6%대를 초과

- 2004년 물가상승률이 10%대를 기록할 전망(추정치)

나. 우크라이나 교역 구조 및 시장 특성

□ 우크라이나 교역규모 총 GDP의 50% 넘어

-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장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이 총 GDP의 50%를 넘어
 - 1990년대에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기존 CIS 교역 파트너에서 EU 회원국으로의 방향전환을 경험
 - 대 CIS 시장 수출비중은 1990년 50%에서 2002년 25%로 급감

□ 1994년부터 수입규제 대폭 완화

- 우크라이나 정부는 건강, 안정 관련 수입규제는 그대로 유지하여 1994년에 수입규제를 대거 철폐
- 2002년말 기준 수입관세는 평균 7%에 달했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수입관세는 다양한 예외조항 때문에 이보다 현저하게 낮음
 - 품목별 수입관세는 0-70%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 몇 개의 예외조항이 유지되고 있음(예) 해바라기씨, 산 동물, 소가죽 등)

□ 1994년 WTO 가입 신청하여 현재 협상 진행 중

- 우크라이나는 2004년 3월 기준 총 23개의 WTO 회원국과 양자간 시장개방 협상 완료
- 다자간 협상은 주로 우크라이나의 WTO가입 조건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수출 규제, 지적재산권, 기술 규격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 철폐가 WTO 가입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 EU는 우크라이나의 WTO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GSP 수혜 대상국

- 우크라이나는 GSP 수혜 대상국으로서 GSP 제도 하 수출이 2000년과 2002년간 407백만유로 → 872백만유로로 2배 급증
- 2002년 우크라이나는 EU GSP 제도의 13번째 큰 수혜 대상국이었으며 전세계적으로 GSP 공여국의 GSP제도 활용률은 2000년 41%에서 2002년 57% 크게 증가
- EU의 GSP제도는 우크라이나의 광물, 바탕 금속,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다. 교역 현황

□ 2000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교역량 매년 증가

- 2002년에는 6.3%의 증가에 그쳤으나 2003년에 35.2%의 큰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04년에도 이어졌음
- 2004년 1~11월간 수출은 294.8억불, 수입 256.4억불로서 38.4억불의 흑자를 기록 (2002년도 무역수지 흑자가 921백만불에서 2003년 59백만불로 급감)
- 수출입규모 모두 다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증가율(42.7%)이 수입증가율(28.1%)을 크게 능가하고 있음 (2004년 1~11월 통계 기준)

□ 주요 교역상대국은 CIS국가와 EU회원국

- CIS국가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대상지역으로 총 교역량의 38.3% 차지 (2004년 1-11월 기준)
 - 이중 특히 러시아와의 교역규모가 총 교역규모의 28.7%로 제일 컸던 반면, 기타 CIS 국가와의 교역량은 극히 미미함
- EU는 당초 2004년 5월 EU 확대 후 CIS지역을 제치고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2004년 1-11월 기준 교역규모가 총 교역규모의 31.2%를 차지

2. 우크라이나-EU 관계

가. EU-우크라이나 관계 배경

□ 우크라이나-EU 기본관계는 PCA에 기초

- 우크라이나와 EU간의 기본관계는 1998년부터 발효된 "동반자 및 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 PCA)"에 기초하고 있음
 - 동반자협정(PCA)은 EU-우크라이나 법규의 조화, 교역상의 협력, 투자협력, 환경보호, 교통, 교육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협정임
 - 양국은 서로에 대해서 최혜국(Most Favored Nation-MFN) 대우를 하고 있으며, 수출입 규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있음
-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시장경제 지향적인 개혁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시현할 경우 자유무역지대 설립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음

□ 2002년 우크라이나 구(쿠츠마)정부 EU가입을 국정과제로 설정

- 2002.6월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EU가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07년에 준회원국, 2012년에 정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계획 하에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
 - 우크라이나는 정액관세를 유로화로 설정하고 제반 법률도 EU가입을 목표로 정비해 왔으며, 경제정책 입안 시에도 EU가입 조건 충족을 반영
- 전임 대통령인 쿠츠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EU가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놓고도 EU와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해 오다가 2004년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친러시아 노선으로 선회
 - 이러한 입장 선회는 전국민의 약 22%를 차지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것과 우크라이나 정부에 냉담하게 대응한 EU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임

□ EU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자금 지원국

- EU는 1991년부터 1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지원
 - TACIS 프로그램 하에서 기술적인 지원과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 TACIS 프로그램의 목적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법제도 강화 및 이들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지원임
 - 핵안전 분야에의 TACIS 지원은 1991-2003년간 무려 260백만 유로에 달하였음
 - 그 외 EBRD에서 지원하고 있는 Fuel Gap 프로그램과 Chernobyl Shelter Fund 등이 포함되고 있음

[EU의 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Tacis National Programme	44	46	48	48	47	233.0
Tacis Nuclear Safety	7.7	8.4	5.5	29.4	21.9	72.9
Tacis Cross-border Cooperation	10.3	5.2	1	5.5	0.5	22.5
Fuel Gap	-	-	25	20	20	65.0
ECHO(humanitarian assistance)	1.6	6.3	1.3	0.9	0	10.1
Chernobyl Shelter Fund	50	40.5	-	40	20	150.5
Macro-financial assistance(loan)	-	58	-	-	110	168.0
총	118.4	168.1	86.8	152.9	229.9	756.1

(자료원 : EU 집행위원회)

다. 우크라이나-EU 교역 현황

- 최근 우크라이나 대외교역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EU와의 교역도 매년 높은 비율로 확대되고 있음
- 2003년 우크라이나-EU간 교역은 156억불로서 전년대비 41.3%나 증가, 2004년에도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
 - 2004년 1~11월간 교역규모는 172억불에 달해, 전년도 규모를 크게 웃돌아
- 2004년 1-11월간 우크라이나의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31.2%로서 2003년 33.9%와 2002년 32.4%에 비해 하락했는데 이는 EU확대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대EU 교역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신규로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에 EU의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함에 따른 일시적 위축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음

- EU국가 중에서 독일, 이태리, 폴란드는 수출입 모두 주된 교역대상국이며, 이외에 불가리아, 헝가리는 10대 수출국가에, 프랑스는 10대 수입국가에 속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대 EU 주종 수출품목은 에너지 및 화학제품 (18.1%), 철강 (15.1%), 전기기계 및 설비 (6.5%), 공구류 (6.4%), 기계설비 (5.5%) 등이며, 주종 수입품목은 기계설비 (17.8%), 차량 (11.5%), 전기기계 및 설비 (8.6%), 합성수지제품 (6.6%), 지 및 판지 (4.8%) 등임

[연도별 우크라이나 - EU간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2002		2003		2004. 1~11	
	합계	對EU(비중)	합계	對EU(비중)	합계	對EU
교역	34,077	11,062(32.4%)	46,100	15,635(33.9%)	55,132	17,233(31.2%)
수출	17,928	5,300(29.5%)	23,080	7,770(33.6%)	29,484	8,365(28.3%)
수입	16,149	5,761(35.6%)	23,020	7,864(34.1%)	25,648	8,867(34.5%)
수지	783	-461	60	-94	3,836	-502

(자료원 :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

라. 우크라이나-EU 투자관계

- 우크라이나의 EU에 대한 의존도가 교역보다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더 높으며, 직접투자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EU간 경제적 협력관계는 갈수록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 2004.7.1 기준 EU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는 42억1,540만불로서 우크라이나 총 외국인투자 유치액(73억2,480만불)의 57.5%를 차지
- EU 국가 중에서 대 우크라이나 최대 투자국은 사이프러스로서 투자누계액이 1,077백만불에 달하며, 이어서 미국(1,054백만불), 영국(741백만불), 독일(535백만불), 네덜란드(508백만불)의 순임

작성자

- 키예프무역관 신남식 관장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부장
- 해외조사팀 김한나 책임연구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
동향 및 전망

발행인 : 채 훈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